이사야 조직신학 I, 하나님

(이사야 32:1~8)

1.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3.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사야 조직신학 I,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사야 조직신학 I, 하나님'
오늘부터 이사야서 32장을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2장은 2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훨씬 더 긴 절들로 이루어진 장들도 한 번에 살펴보며 지나왔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32장 1~20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기독교 진리 전체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놀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마치 사도신경과 같은 틀 안에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제목을 이사야의 조직신학으로 붙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사에서 조직신학을 대표하는 우선적 저서는 칼뱅의 기독교강요입니다. 기독교강요는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 안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다룸)을 다른 말로는 교리학이라고도 하는데 20세기 교부로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독일의 개혁신학자)의 교리학개요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 안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사야는 본문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예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당대의 선민 남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예언이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통용될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또 그 사람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쟁이 활발합니다만, 히브리어 '이쉬('îš, אִישׁ)'라는 단어로 가장 단순하게 첫 번째 의미로 '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문

맥상 앞서 나온 한 왕과 방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정확하게는 '또 한 사람이 있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의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라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2절의 '또 한 사람은' 곧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라고 성령의 부으심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도신경이나 칼뱅의 기독교강요, 칼 바르트의 교리학개요와 같은 조직신학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Credo)입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I believe).'라는 의미로써 직역하면 '나의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나는 믿는다'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어제 31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남 유다를 책망하시며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보려하지 않고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앙모하다'라고 번역된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솨아(šā-'ū, שָׁעָה)는 단순히 시선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열납하시던 장면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여놓기 위해 제사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과 상통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머리를 이사야의 식으로 말하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오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의 부분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오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뒤의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부분도 '성령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오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믿는다'라는 말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다만 그 믿음으로 인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황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이사야는 오늘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와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공부한 조직신학은 무척 딱딱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과목이 문학적 표현들을 통하여 부드럽고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음을 깨

닫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본문으로 네 번에 걸쳐서 '이사야의 조직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선민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대전제는 믿음입니다. 한편 이사야의 조직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는 '마음에 담기 위한 바라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형식으로 바꾸어보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마음에 담기 위하여 찾고 찾아서 바라보게 되었더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는 부분은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분을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 유다를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앗수르의 침공에 대한 위협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앗수르만 바라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 세상에서 나를 압도하게 된 문제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오는 판단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였는데 악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부르는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바라보지 못하면서 대신 세상을 충만하게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포심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오는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계획하고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입니다.

당시의 선민에게는 번제단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담았던 마음 죽이기를 반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1절의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라는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손에 쥐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 하나하나를 쥐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손대심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백'이란 곧 왕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는 신하들입니다. 신하들 중에는 분봉왕처럼 한 지역을 할당받아 관리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업무의 성격상 부서나 역할을 할당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방백입니다.
공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나의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상의 문제,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내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삶이 풀려 나가는 일 등에 하나님의 손대심입니다. 이 공의에는 잘못됨이 없습니다. 내 활동과는 무관하게 잘잘못을 따질 겨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손대시고 계신 공의입니다. 이 공의에는 무조건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활동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정의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손대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연관성의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간관계나 내가 직접 하는 사업에서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익한 일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최선이자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방백 된 위치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 최선으로 유익이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예언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도 빠짐없이 왕으로 통치하시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회사의 말단 사원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내 위에는 사장님을 시작으로 줄줄이 윗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윗사람들을 움켜쥐고 계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방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 대한 통치를 이루어가십니다. 이것을 알고 회사를 다닌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측근으로써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측근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마무리 지으며 구체적으로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앞서 보았던 31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방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이럴 때에 나의 말과 행동의 어느 것 하나 정의롭지 않은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가장 유익이 되고 최선이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이때에 나의 삶도 배우자의 삶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해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향해 드러나는 나의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것입니다. 친구도 부모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최선이자 최고의 유익이 되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백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최선이자 최고로 유익한 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규정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정의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와 창기들을 받아들이신 것이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따사롭고 온유하신 분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는 채찍을 들고 몰아내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가장 최선 최고의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100%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도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경말씀이 기준과 거울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측정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식으로 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방백이 되고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육체의 연관성으로 접하는 영역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담긴 공의의 하나님의 손대심으로 다스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물을 대할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내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방백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시를 받아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임에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남을 위한 최고이자 최선이 나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받아들이셨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표현될 것이고, 때로는 성전을 정화하시던 질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대심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봄을 지속할 때에 내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철학자 사상가 상담자 전문가도 해줄 수 없는 최고 최선의 말과 행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박 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내 삶이 완전히 장악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방백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게 정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 하루도 가슴 벅찬 이사야의 조직신학의 깊은 뜻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

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주시고, 그럼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